



관상적인 가치가 높은 목련 류 2

(*Magnolia* Species and Hybrids 2)



실장 김 종 근

천리포수목원 자원식물연구소

(Homepage: www.plusgarden.com,

E-mail: iloveplant@hotmail.com)

Magnolia x loebneri 'Leonard Messel' (레오나르드메셀큰별목련)

1950년 영국의 남동부에 위치한 나이만스정원(Nymans Garden)의 최고정원사인 제임스 콤버(James Comber)씨에 의해 육종된 품종이다.

큰별목련(*M. x loebneri*)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련(*M. kobus*)과 별목련(*M. stellata*)의 교잡종으로 일반적으로 목련보다는 꽃잎이 많고 폭이 좁으며 별목련보다는 꽃잎이 적으며 폭이 넓은 중간 형태를 닮았다.

4월 초순부터 말경까지 약 2주에서 3주 동안 분홍색으로 개화를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약간씩 꽃잎 색깔이 짙어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한다. 꽃의 형태는 별형으로 유럽권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소규모 화목류 중 하나이다.



▲ *Magnolia x loebneri* 'Leonard Messel' 개화모습

Magnolia x loebneri 'Merrill' (메릴큰별목련)

큰별목련 종류 중에 가장 크고 잘 자라는 품종으로 북아메리카에서는 수고와 수관폭이 각각 9미터에 달하는 나무도 있다.

꽃은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약 2주에서 3주 동안 개화하며 15장의 넓은 순백색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품종은 1939년

관상적인 가치가 높은 목련류 2 (Magnolia Species and Hybrids 2)



▲ *Magnolia x loebneri* 'Leonard Messel' 전체수형



▲ *Magnolia x loebneri* 'Merrill' 개화모습



▲ *Magnolia x loebneri* 'Merrill' 전체수형

에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부속수목원인 아놀드수목원에서 싹스박사(Dr. Sax)의 한 제자에 의해 육종되었고, 1944년에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결국, 1952년에는 아놀드수목원의 원장이었던 Elmer Merrill의 이름을 따서 품종명을 붙였다.

국내에서도 큰별목련 중에서 가장 왕성한 생장력을 가지고 있으며, 널리 보급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Magnolia macrophylla(큰잎목련)

미국의 남동부지방이 원산지인 이 목련은 꽃도 특이하고 예쁘지만 잎의 관상가치가 더 높은 목련이다. Big Leaf Magnolia라는 영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큰 잎을 가지고 있다.

원산지에서는 약 7.5m에서 15m에 이를 정도



▲ *Magnolia macrophylla* 신엽



▲ *Magnolia macrophylla* 잎의 형태



▲ *Magnolia macrophylla* 전체수형

로 크게 자라는 목련이고 곧게 한줄기로 자라는 주간에서 펼쳐지는 가지와 그 수형은 넓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 데 충분하다.

꽃은 6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개화하는데, 6장의 백색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꽃 한 장의 길이가 약 20cm, 폭 10cm에 달할 정도로 크다. 또한, *M. macrophylla* subsp. *dealbata* 라는 목련이 있는데 이 목련은 잎 한 장의 크기가 약 75cm에 이른다.

Magnolia salicifolia(버들목련)

버드나무의 잎을 닮았다하여 '*salicifolia*' 라는 중명이 유래되었다. 따라서, 일명 버들목련이라고도 불리는 이 목련은 일본이 원산지이며 해발고도 490m에서 1,340m 사이에 서식하고 있다. 꽃은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개화하는데, 꽃잎은 6장으로 백색을 띠고 있다.

특히 버들목련은 그 꽃의 향기가 매우 강하여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을 정도이며, 곧게



▲ *Magnolia salicifolia* 개화모습



▲ *Magnolia salicifolia* 버드나무 잎과 닮은 모습

자라는 피라미드형의 수형도 아주 멋있어 우리나라의 공원등지에 식재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Magnolia sprengeri 'Eric Savill' (에릭사빌스프랭게리목련)

1982년 영국 세빌정원(Savill and Valley Gardens)의 존 본드(John Bond)씨에 의해서 육종된 품종이다. *M. sprengeri* var. *sprengeri* 'Diva'의 씨앗에서 선발된 아교목성의 목련으로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밝고 진한 핑크빛으로 개화한다. 12장의 넓은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17.5cm~20cm에 달할 정도로 큰 꽃을 가지고 있다. 바깥쪽 꽃잎의 색깔은 진한 핑크빛이지만 안쪽은 백색에 가까운 연한 핑크빛을 띤다.



▲ *Magnolia sprengerii* 'Eric Savill' 개화모습



▲ *Magnolia sprengerii* 'Eric Savill' 올려다 본 모습



▲ *Magnolia sprengerii* 'Eric Savill' 전체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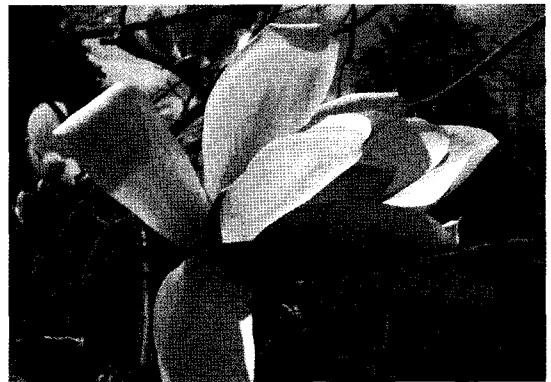
바깥쪽과 안쪽의 꽃잎 색깔이 뚜렷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개화하면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Magnolia sprengerii* var. *sprengerii* 'Diva' (디바스프렝게리목련)**

영국에서는 약 16m에 달할 정도로 크게 자라는 교목성 목련이다. 잎의 길이는 약 18cm, 폭은 12cm에 달하며 잎 뒷면의 주맥에 은색 털이 밀생한다. 꽃은 약 15~20cm 정도의 크기로 4월 중순부터 말경까지 개화하는데, 체리 향 같은 냄새가 아주 좋다. 꽃잎은 진한 장밋빛 분홍색을 띠고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영하 27°C에도 견딜 정도로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 전역에 식재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열매의 관상가치



▲ *Magnolia sprengerii* var. *sprengerii* 'Diva' 봉오리



▲ *Magnolia sprengerii* var. *sprengerii* 'Diva' 개화모습



▲ *Magnolia tripetala* 개화모습



▲ *Magnolia tripetala* 열매



▲ *Magnolia tripetala* 전체수형

도 높는데 빨간색으로 달리는 골돌모양의 형태가 매우 독특하며 아름답다.

Magnolia tripetala(우산목련)

북아메리카 동부의 해발고도 약 650m 정도의 숲에서 자라는 교목성 목련으로 습도가 높고 부식질이 많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 Umbrella *Magnolia* 라는 영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산대용으로 쓸 만큼 넓은 잎을 가진 목련이다.

5월 중순부터 말경까지 개화하는데, 꽃잎은 보통 12장을 가지고 있지만 간혹 9~16장까지 나오기도 한다. 꽃잎은 한 장의 길이가 약 20cm까지 자라며, 종명의 *tripetala*는 제일 바깥쪽 3장의 녹색 꽃잎을 두고 유래되었다.

잎은 약 70cm에 달할 정도로 크게 자라는데 잎이 무성해 질 때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기도 한다.

참고문헌

David Hunt(1998) *Magnolias and their allies*, International Dendrology Society and The Magnolia Society.
 Graham Rankin(1999) *Magnolia -A Hamlyn Care Manual-*
 Jim Gardiner(2000) *Magnolias -A Gardener's Guide-*, Timber Press.
 Liberty H. Bailey(1976) *Hortus Third*, Macmillan.
 Neil G. Treseder(1978) *Magnolias*, Faber.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http://www.magnoliasociety.org>
<http://www.plusgarden.com>

